

책스책 책방
4학년 1반 · 2026

책스책 단편집

글 책스책



책 스 책 책 방

책스책 단편집

책스책 지음

차례

1. 파도가 만든 보석 · 체크책	5
01 새벽 다섯 시	6
02 파도가 만든 보석	8
03 검은바위 앞에서	10
04 사라진 민재	13
05 밀물	15
06 두 사람의 보물찾기	17
07 돌아가는 길	20
08 부록 -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22
2. 반딧불이 원정대 · 체크책	23
01 새벽 두 시	24
02 열흘만 나오는 반딧불이	26
03 세상에서 제일 심심한 방학	29
04 둘이 봐야 하는 지도	31
05 원정 준비	34
06 밤의 산길	36
07 우리의 원정은 계속된다	39
08 부록 -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42
3. 사각사각 얼음 요정과 무지개 빙수 · 체크책	43

01	세상에서 제일 더운 여름	44
02	구름 얼음 상회	46
03	회색 빙수	49
04	진짜 단맛을 찾아서	53
05	사각사각 부엌의 밤	55
06	무지개 빙수	57
07	다시 불어오는 바람	59
08	부록 -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61



01

파도가 만든 보석

책스책 지음

새벽 다섯 시

"수아야, 일어나. 출발해야지."

엄마가 어깨를 흔들었을 때, 창밖은 아직 깜깜했다. 새벽 다섯 시. 방학하면 실컷 늦잠자는 게 소원이었는데, 방학 첫날부터 새벽에 일어나다니. 그래도 수아는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났다. 오늘은 바다에 가는 날이니까.

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동생 민재가 손바닥으로 가운데를 쓱 갈랐다.

"여기부터 내 자리. 넘어오기 없기."

"야, 네 다리가 벌써 넘어왔거든?"

"이건 다리지 내가 아니지."

"다리가 너지 그럼 누구야."

수아는 5학년, 민재는 2학년이다. 세 살 차이 나는 남매는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벌써 한 판 붙을 뻔했다. 아빠가 백미러로 뒤를 훑듯 봤다.

"바다 안 갈 사람은 지금 내리세요."

둘은 입을 꼭 다물고 창밖만 봤다. 그래도 속으로는 둘 다 신이 나 있었다. 여름방학 가족 여행. 그것도 바다로 3박 4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해가 떴다. 민재는 금세 잠들어서 입을 벌리고 코를 골았다. 조금 전에 그어 놓은 경계선을 다리가 훌쩍 넘어와 있었다. 수아는 그 다리를 밀어낼까 하다가 그냥 두었다. 자는 애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

창문을 조금 열자 바람 냄새가 달라졌다. 짭짤하고 비릿한 냄새. 엄마가 말했다.

"바다 냄새다. 다 왔네."

언덕을 넘는 순간, 수아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바다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짹 펼쳐졌다. 햇빛을 받은 물결이 은박지처럼 반짝거렸다. 민재가 벌떡 깨서 창문에 얼굴을 붙였다.

"우와! 우와!"

방금까지 경계선을 긋던 남매는 어느새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같은 바다를 보고 있었다.

파도가 만든 보석

가족이 묵을 곳은 바닷가 언덕에 있는 파도소리 민박이었다. 마당에 평상이 있고, 빨랫줄에 수건이 펄럭이는 집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오며 반겨 주셨다.

"먼 길 왔네. 짐 풀고 얼른 물에 들어가. 오늘 물이 좋아."

수아와 민재는 짐을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바다로 달려갔다. 발이 모래에 푹푹 빠졌다. 뜨거운 모래를 지나 물에 첫발을 담그는 순간, 발가락 사이로 시원한 물이 감겼다.

"차가워!"

"안 차가워! 완전 좋아!"

둘은 파도랑 술래잡기를 했다. 파도가 밀려오면 깽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물러가면 쫓아갔다. 민재는 파도에 엉덩방아를 찧고 잔물을 한 모금 먹었다.

"우엑! 바다가 왜 이렇게 짜?"

"그러게 누가 파도를 마시래?"

아빠는 튜브를 밀어 주다가 모래밭에 벌러덩 누웠고, 수아와 민재는 그 위에 모래를 부지런히 퍼 날랐다. 아빠는 목만 내놓은 채 모래 이불을 덮고 낮잠까지 잤다. 엄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백 장쯤 찍었다.

해 질 무렵, 수아는 혼자 물가를 걸었다. 젖은 모래 위에 조개껍데기랑 돌멩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러다 파도가 막 쓸고 간 자리에서 까만 돌 하나가 반들반들 빛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주워 보니 손안에 쏙 들어오는 동글동글한 돌이었다. 그런데 신기했다. 까만 돌 한가운데를 하얀 줄 하나가 띠처럼 빙 두르고 있었다. 누가 붓으로 그려 놓은 것처럼 반듯한 줄이었다. 물에 담그자 까만색은 더 까매지고 흰 줄은 더 하얘졌다.

저녁을 먹고 평상에 앉았을 때, 수아는 할머니께 돌을 보여 드렸다. 마루 기둥에는 조그만 칠판이 걸려 있었다. 물 드는 시간과 물 빠지는 시간이 분필로 적혀 있는, 할머니의 물때 칠판이었다.

"할머니, 이 돌 좀 보세요. 누가 줄을 그려 놓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을 받아 들고 웃으셨다.

"띠돌이구나. 돌 속에 하얀 돌이 원래 줄처럼 박혀 있던 거야. 파도가 걸을 동글동글 다듬어 주니까 속에 있던 줄이 드러난 거지."

"돌이 원래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랑긴. 산에서 굴러온 돌은 죄다 모나고 뾰족해. 그게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가 데리고 놀거든. 모래에 구르고 물에 씻기고, 그렇게 몇십 년을 구르면 모서리가 다 닳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몇십 년이요?"

"그럼. 급하게는 안 돼. 파도가 오래오래 만든 보석이지."

파도가 만든 보석. 수아는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날 밤 수아는 할머니께 빈 잼 병을 하나 얻었다. 여행 내내 예쁜 돌을 모아서 담아 갈 생각이었다. 병을 머리맡에 두고 눕자,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검은바위 앞에서

이튿날 아침, 가족은 갯벌에 갔다. 물이 빠진 자리에 넓은 진흙 벌판이 드러나 있었다. 호미로 진흙을 살살 긁자 조개가 나왔다. 민재는 조개보다 진흙에 더 신이 나서, 삼십 분 만에 온몸이 초코 과자처럼 변했다.

"민재야, 너를 캐 가야겠다."

아빠 말에 다들 웃음이 터졌다. 점심에는 캐 온 조개를 넣고 끓인 칼국수를 먹었다. 국물이 뽕양고 시원했다.

오후에 수아는 예쁜 돌을 찾으러 나섰다. 어제 띠돌을 주운 물가부터 천천히 훑었다. 하얀 조약돌 하나, 줄무늬 돌 둘. 잼 병에 담을 때마다 달그락, 기분 좋은 소리가 났다.

문제는 민재였다. 민재가 아침부터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다.

"누나, 나도 찾을래. 이것도 보석이야?"

"그건 그냥 시멘트 덩어리야."

"이건?"

"조개껍데기고."

"이건?"

"그건 과자 봉지잖아! 저리 좀 가. 네가 옆에서 떠들면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야."

민재는 입을 삐죽 내밀고 물러갔다. 수아는 다시 모래에 눈을 붙였다. 해가 기울 때까지 뒤편 끝에 병에는 돌이 아홉 개나 모였다. 그중에 제일 아끼는 건 어제 주운 까만 띠돌이었다.

수아는 병을 파라솔 아래 돛자리에 올려 두고, 물가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더 돌았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두리번거리던 수아의 눈에 저만치 검은바위 옆 모래밭이 들어왔다. 검은바위는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크고 검은 바위였다. 그 옆에 민재가 쪼그려 앉아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그런데 성 꼭대기에 박힌 까만 돌이 어쩐지 눈에 익었다.

수아는 눈을 의심했다. 자기 띠돌이었다. 수아의 병이 민재 옆에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고, 돌들이 모래성 여기저기에 장식처럼 박혀 있었다.

"야! 김민재!"

수아는 달려가서 병을 뺏아챘다.

"누나 오면 보여 주려고 했어. 보석 성이야. 멋있지?"

"누가 만지래? 내 거잖아!"

수아가 모래성에 박힌 돌을 마구 뽑아 병에 던져 넣었다. 민재도 지지 않고 병을 잡아당겼다.

"내가 넣을 거야! 내가 만든 성이니깐!"

"놔! 놓으라고!"

돌이 병을 서로 잡아당기던 그때였다. 병이 손에서 쏙 빠져나가 검은바위 쪽으로 날아갔다. 병은 바위틈 깊은 물웅덩이 속으로 텀벙 빠져 버렸다. 뚜껑 열린 병에서 돌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가라앉았다.

"안 돼!"

수아가 웅덩이에 팔을 넣어 봤다. 손끝에 돌이 잡히긴 했지만 죄다 그냥 바윗돌이었다. 어두운 물속에서는 어느 게 수아의 돌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사이 파도가 들어와 웅덩이를 한 번 휘젓고 나갔다. 띠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만지지만 않았어도!"

"누나가 잡아당겨서 그런 거잖아....."

"따라다니지 마! 너랑 다시는 안 놀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엄마가 사정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동생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나한테만 참으래? 재가 먼저 만졌잖아!"

수아는 빈손으로 민박까지 뛰어갔다. 뒤에서 민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내가 다 찾아줄게! 진짜야!"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라진 민재

저녁 밥상은 조용했다. 수아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민재 자리는 비어 있었다.

"민재는?"

아빠가 물었다. 엄마가 마당 쪽을 봤다.

"아까 평상에 있었는데."

마당에도, 방에도, 화장실에도 민재는 없었다. 신발장을 보니 민재의 파란 슬리퍼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 녀석이 어딜 갔지?"

아빠가 손전등을 챙겨 들었다. 그때 마루 기둥에 걸린 물때 칠판이 수아의 눈에 들어왔다.

「오늘 물 드는 시간: 저녁 일곱 시」

시계는 여섯 시 사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낮에 민재가 울면서 외친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다.

'누나! 내가 다 찾아줄게!'

"아빠, 나 알 것 같아. 검은바위야. 민재가 내 돌 찾으러 갔어!"

"검은바위? 거긴 물 들면 잠기는 데다!"

마루에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다.

"밀물은 사람 걸음보다 빨라. 서둘러라!"

아빠와 수아는 바다로 내달렸다. 해가 수평선 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고, 낮에 그렇게 넓던 모래밭이 몰라보게 좁아져 있었다. 파도가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데서 철썩거렸다.

"민재야!"

"김민재!"

수아는 목이 터져라 불렀다. 그때, 검은바위 쪽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나.....!"

검은바위 위에 민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바위 아래까지 벌써 물이 차올라 찰랑거렸다. 민재의 파란 슬리퍼 한 짝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밀물

"민재야,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아빠가 바지를 걷고 물로 들어갔다. 물은 아빠 무릎까지 왔다. 아빠는 성큼성큼 걸어가 민재를 번쩍 안아 올렸다. 수아는 물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두 사람이 나오기만 기다렸다.

모래밭에 내려선 민재는 수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미안해. 보석 찾으려고 했는데, 물이 자꾸 올라와서, 무서워서 못 내려왔어....."

민재가 젖은 주먹을 펴 보였다. 조그만 손바닥 위에 돌 세 개가 놓여 있었다. 하얀 것 두 개, 줄무늬 하나. 바위틈을 뒤져서 겨우 건진 모양이었다. 손가락 끝이 퉁퉁 붙어 있었다.

수아는 목이 콧 막혔다. 돌 아홉 개가 아까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하마터면 동생을 잃어버릴 뻔했다.

"바보야..... 돌멩이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

"누나가 다시는 안 논다고 했잖아....."

수아는 민재를 꼭 끌어안았다. 민재의 몸이 물에 젖어 차가웠다. 수아는 더 세게 안았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해. 안 논다는 말, 거짓말이야."

"진짜?"

"진짜. 대신 약속해. 다시는 혼자 바다에 오지 마. 보석 백 개보다 네가 더 중요해."

민재가 수아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둘을 한꺼번에 안아 올렸다. 뒤돌아보니 검은바위는 어느새 물속에 반 넘게 잠겨 있었다.

민박에 돌아오자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엄마는 민재를 끌어안고 등을 팡팡 두드리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는 민재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 주셨다.

"바다는 무서운 데다. 하지만 무서운 걸 알면 하나도 안 무서운 데지."

그날 밤, 수아와 민재는 한 이불을 덮고 누웠다. 민재가 조그맣게 물었다.

"누나, 내일도 바다 갈 거지?"

"가야지."

"나도 데려갈 거지?"

수아는 대답 대신 민재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 밀었다. 민재가 킁킁 웃다가 금세 잠들었다. 파도 소리가 밤새 창문을 토닥거렸다.

두 사람의 보물찾기

다음 날 아침, 수아와 민재는 할머니 앞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가 물때 칠판을 마루에 내려놓으셨다.

「오늘 물 빠지는 시간: 낮 두 시」

"바다는 하루에 두 번 숨을 쉰다. 들이쉬면 밀물, 내쉬면 썰물. 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 시간에 가면, 어제 그 웅덩이도 바닥까지 들여다보일 거다."

"그럼 두 시에 가면 제 돌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고말고. 바다는 삼킨 걸 꼭 돌려주는 날이 있거든."

낮 두 시, 남매는 검은바위로 갔다. 이번에는 아빠도 함께였다. 할머니 말씀대로 물이 저만치 물러나 있었고, 어제 그 웅덩이는 무릎 깊이도 안 되는 맑은 물구덩이가 되어 있었다.

"저기다! 흰 줄이 보여!"

민재가 소리쳤다. 맑은 물 바닥에 까만 띠돌이 흰 줄을 두른 채 놓여 있었다. 바위틈에는 잼 병도 끼어 있었다. 둘은 바지를 걷고 들어가 낚익은 돌을 하나씩 건져 올렸다. 하얀 것, 줄무늬 것, 그리고 수아가 제일 아끼던 까만 띠돌까지. 어제 민재가 건진 세 개와 합치면, 아홉 개 중에 일곱 개를 되찾은 셈이었다.

"두 개는 어디 갔지?"

"파도가 가져갔나 봐. 몇십 년 더 굴려서 더 예쁘게 만들려고."

민재의 말에 수아는 피식 웃었다. 그럴듯한 소리였다.

웅덩이 구석에서 민재가 소라 껍데기를 주웠다. 그런데 껍데기가 갑자기 꿈틀, 움직였다. 민재가 깝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껍데기 밑으로 조그만 다리들이 나와 있었다.

"소라게다. 집주인이 살고 있네."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소라게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웅덩이에 살그머니 도로 놓아주었다. 소라게는 껍데기를 짊어지고 부지런히 달아났다.

"집 있는 애는 안 가져가."

그날 오후, 둘은 나란히 엎드려 물가를 훑었다. 이제는 민재도 제법이었다. 그냥 돌이랑 예쁜 돌을 구별할 줄 알게 됐고, 수아보다 먼저 찾는 일도 생겼다. 그러다 민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누나! 이것 봐!"

민재의 손바닥에 이상한 돌이 놓여 있었다. 가운데에 동전만 한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었다. 구멍에 눈을 대자 바다가 동그랗게 보였다. 저녁에 할머니가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다.

"구멍 뚫린 돌이네. 이걸 진짜 귀한 거다."

"이 구멍, 누가 뚫었어요?"

"조개가 뚫었지. 돌을 파고들면서 사는 조개가 있거든. 손톱만 한 조개가 몇십 년을 갇아야 이런 구멍이 나. 옛날 사람들은 이 돌을 주우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다. 나도 평생 몇 개 못 주웠어."

민재는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러더니 구멍 돌을 수아의 잼 병에 쓱 넣었다.

"누나 줄게. 어제 잃어버리게 해서 미안하니까."

수아는 병에서 구멍 돌을 도로 꺼내 민재 손에 쥐여 주었다.

"이건 네가 찾은 네 보석이야. 대신 병은 우리 둘 거 하자. 같이 모은 거니까."

그날 밤 가족은 평상에 모여 수박을 먹었다. 수박씨 멀리 뺏기 시합에서는 엄마가 일등을 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도시에서 본 것보다 열 배는 많이 떠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아는 생각했다. 이번 여름은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고.

돌아가는 길

마지막 날 아침, 가족은 집을 챙겨 마당에 나섰다. 할머니가 봉지 가득 옥수수를 삶아 주셨다.

"내년 여름에 또 오너라. 파도가 그새 보석을 잔뜩 만들어 놓을 테니."

"네! 꼭 올게요!"

수아와 민재가 입을 모아 대답했다.

차가 언덕을 넘기 전, 수아는 뒤창으로 바다를 돌아봤다. 아침 햇빛에 물결이 반짝거렸다. 저 물속 어딘가에서 파도는 오늘도 모난 돌들을 데리고 놀고 있을 것이다.

뒷좌석에서 민재가 손바닥으로 가운데를 쓱 갈랐다.

"여기부터 내 자리. 넘어오기 없기."

"그러시든가."

수아는 웃으며 창밖을 봤다. 그런데 삼십 분도 안 돼서 민재의 머리가 스르르 넘어오더니, 수아의 어깨에 툭 었혔다. 새근새근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주머니가 볼록한 걸 보니 구멍 돌을 넣어 온 모양이었다.

수아는 이번에도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어깨를 조금 낮춰 주었다.

집에 돌아온 수아는 잼 병에 물을 붓고 책상 위 창가에 올려놓았다. 물에 잠긴 돌들은 바닷가에서처럼 색이 살아났다. 오후 햇빛이 들자 하얀 돌, 줄무늬 돌, 까만 띠돌이 물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였다. 병에는 매직으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수아와 민재의 보물 — 파도가 만든 보석」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재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누나, 내년엔 구멍 돌 열 개 찾을 거야."

"열 개는 무슨. 할머니도 평생 몇 개 못 주우셨다는데."

"그럼 내년에도 가고, 후년에도 가고, 계속 가면 되지."

수아는 웃음이 터졌다. 계산은 이상한데, 어쩐지 맞는 말 같았다.

창가의 병이 반짝, 하고 빛났다.

끝.

□ 2026 책스책

※ 이 책은 책스책이 만든 창작 동화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 사건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책스책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수정하는 것을 금합니다.

부록 -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1. 수아와 민재가 다룬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때 수아의 마음과 민재의 마음을 각각 말해 보세요.
2. 민재는 왜 혼자 검은바위에 갔을까요? 그 행동은 왜 위험했나요?
3. 바닷가의 돌은 왜 동글동글할까요? 할머니가 둥근 돌을 "파도가 만든 보석"이라고 부른 까닭을 이야기해 보세요.
4. 수아는 구멍 뚫린 돌을 왜 민재에게 돌려주었을까요? 병을 "우리 돌 거"로 하자고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5. 가족과 함께한 여행이나 나들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골라, 그림과 글로 소개해 보세요.

— 끝 —



02

반딧불이 원정대

책스책 지음

새벽 두 시

이불 속에서 폰 불빛이 새어 나왔다.

'딱 한 판만 더.'

태오는 또 다짐했다. 벌써 열 번도 넘게 한 다짐이었다. 시계는 새벽 두 시였다.

태오가 반년째 하고 있는 게임 <별의 탑>에서 밤 열두 시에 한정 뽑기가 시작됐다. 반년을 기다린 캐릭터, 혜성 기사 카이. 이번에 놓치면 언제 또 나올지 몰랐다.

태오는 모아 둔 별조각을 몽땅 털어 뽑기를 돌렸다. 석 달 동안 용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산 별조각이었다.

화면에 별똥별이 쏟아졌다. 그리고 흔해 빠진 병사가 나왔다.

또 돌렸다. 방패가 나왔다.

또 돌렸다. 물약이 나왔다.

'다음엔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이상했다. 빵이 나올수록 더 돌리고 싶어졌다. 결국 별조각을 다 쓰고 나서야 태오는 폰을 내려놓았다. 카이는 끝내 안 나왔다. 석 달치 용돈이 하룻밤 만에 사라졌다. 이불을 뒤집어쓰는데 창밖이 벌써 밝아 오고 있었다.

그날 태오는 아침밥도 거르고 학교에 갔다. 수업 시간엔 졸다가 이름을 세 번이나 불렸다. 체육 시간엔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요즘 자꾸 그랬다.

쉬는 시간, 옆자리 은호가 태오 얼굴을 뵈히 봤다.

"너 눈 밑이 왜 그래?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왔어."

"어젯밤에 한정 뽑기가 떠서."

"뽑았어?"

".....아니."

"그럼 밤새 다크서클만 뽑았네."

은호가 킁킁 웃었다. 태오는 대꾸 대신 은호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열흘만 나오는 반딧불이

은호는 1학년 때부터 태오의 단짝이었다. 두 집은 놀이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다. 태오가 좋아하는 건 게임, 은호가 좋아하는 건 그림. 은호의 스케치북에는 놀이터 비둘기, 화단 개미, 담벼락 고양이가 가득했다.

방학식 날 아침, 은호가 태오 책상에 카드 한 장을 올려놓았다. 까만 밤하늘에 초록 점들이 총총 떠 있는 그림이었다.

"이게 뭐야? 별이야?"

"반딧불이. 우리 할아버지 동네에 나타났대."

은호네 할아버지는 뒷산 너머 개울마을에 사셨다. 개울물이 몇 해 전부터 다시 맑아지더니, 올여름에는 드디어 반딧불이까지 돌아왔다고 했다.

"반딧불이는 일 년에 딱 열흘만 나온대. 토요일 밤에 보러 가기로 했어. 엄마가 너도 같이 가도 된대."

"진짜 반딧불이를? 갈래, 갈래!"

"토요일 저녁 여섯 시, 놀이터에서 만나. 늦으면 안 돼.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해."

"여섯 시! 걱정 마."

태오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표시를 만들었다. 은호가 씩 웃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띠링.

알림 소리에 태오는 눈을 떴다. 폰 화면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 경험치 세 배, 숨겨진 층 개방!」

숨겨진 층! 소문으로만 듣던 곳이었다. 태오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시계를 보니 아침 아홉 시. 약속은 저녁 여섯 시.

'아홉 시간이나 남았네. 잠깐만 하고 준비하면 되지.'

"태오야, 오늘 은호랑 어디 간다며?"

방문 밖에서 엄마가 물었다.

"저녁이에요, 저녁!"

태오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잠깐만 할 생각이었다. 정말이었다. 그런데 숨겨진 층 문은 쉽게 안 열렸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는 사이에 어느새 방바닥까지 노을이 길게 들어와 있었다. 태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시계는 일곱 시 반이었다.

"어?"

태오는 폰을 내던지고 놀이터로 뛰었다. 미끄럼틀 밑은 텅 비어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안 받았다. 또 걸었다. 안 받았다.

「미안해. 진짜 미안. 지금이라도 갈게. 어디야?」

답장은 밤늦게야 왔다. 딱 한 줄이었다.

「산길은 밤에 못 와. 됐어.」

사흘 뒤, 태오는 놀이터에서 은호와 마주쳤다. 은호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은호야, 미안해. 잠깐만 하려고 했는데....."

"게임 했지."

은호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엄마랑 둘이 갔어. 할아버지는 여섯 시 반까지 개울 앞에서 기다리셨고. 네 손전등까지 챙겨 놓으시고. 결국 너만 빼고 봤어."

".....반딧불이, 예뻐?"

묻고 나서 태오는 아차 싶었다. 은호가 처음으로 태오를 똑바로 봤다.

"응. 엄청. 근데 보는 내내 옆이 허전했어. 너한테 보여 주고 싶어서 초대한 건데."

은호는 숨을 한 번 골랐다.

"게임 속 별이 나보다 좋으면, 그냥 게임이랑 놀아."

은호는 가 버렸다. 태오는 놀이터에 혼자 남아서 주먹만 짊 쥐었다.

세상에서 제일 심심한 방학

방학은 시작부터 엉망이 됐다. 놀이터 하나를 사이에 둔 두 집이, 이제는 아주 먼 나라처럼 느껴졌다.

태오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다. 이상하게 게임도 재미가 없었다. 탑을 올라도 하나도 신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손은 자꾸 폰을 집었다. 재미도 없는데 왜 자꾸 하는 걸까. 태오도 알 수 없었다.

일주일쯤 지난 저녁,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태오야, 방학인데 은호랑은 안 노니?"

태오는 대답 대신 숟가락으로 밥만 뒤적거렸다.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화내는 얼굴이 아니라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그게 더 힘들었다.

그날 밤 태오는 거울을 봤다. 눈은 빨갛고 볼은 홀쭉했다. 용돈은 사라졌고, 단짠은 등을 돌렸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다음 날, 태오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걷다 보니 어느새 은호네 집 앞이었다. 그런데 초인종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결국 못 누르고 돌아섰다. 그때 골목에서 누가 불렀다.

"태오 아니냐."

은호네 할아버지였다. 밀짚모자에 장화 차림으로, 자두 봉지를 들고 계셨다. 태오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무라는 대신 자두 하나를 손에 쥐여 주셨다.

"반딧불이 못 봐서 어쩌냐. 올해는 이제 끝물인데."

"끝물이요?"

"열흘 나오고 들어가거든. 개울가엔 이제 없다."

태오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수염을 쓱 문지르셨다.

"하기야, 딱 한 군데는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지. 안골 말이다."

"안골이요?"

"옛날에 물레방아 있던 골짜기야. 산속이라 물이 차가워서 반딧불이가 제일 늦게까지 남는 데다. 내가 너희만 할 때는 밤마다 몰래 넘어가서 봤지. 도깨비불인 줄 알고 오줌 지린 놈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셨다. 그러다 태오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다.

"가 보고 싶으냐?"

태오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길이 험해서 지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 집에 오래된 게 하나 있긴 한데."

할아버지가 땀을 들이셨다.

"혼자 온 사람한테는 못 준다. 그 지도는 둘이 봐야 하는 지도거든."

둘이 봐야 하는 지도

이튿날 아침, 태오는 은호네 초인종을 눌렀다. 어제는 못 눌렀던 초인종이었다.

문을 연 은호는 태오를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고 했다.

"잠깐만! 딱 삼 분만!"

태오는 준비해 온 말을 쏟아 냈다.

"변명 안 할게. 그날 내가 잘못했어. 약속보다 게임을 골랐어. 너랑 할아버지를 기다리게 해 놓고. 정말 미안해."

은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가만히 있었다.

"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 안골이라는 데에 반딧불이가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른대. 옛날 지도를 주신댔어.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둘이 봐야 하는 지도래."

은호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근데....."

태오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표지에 '태오의 모험 공책'이라고 적혀 있었다. 1학년 때부터 쓴 공책이었다. 놀이터 보물찾기 지도, 돌이 만든 용암 놀이 규칙, 돌만 아는 암호표가 가득했다.

"이거 기억나? 나 사실 이때가 제일 재미있었어. 반딧불이, 나도 보고 싶어. 근데 너랑 같이 가는 게 아니면 소용없어."

은호는 공책을 받아 한 장 한 장 넘겼다. 놀이터 보물찾기 지도가 나오자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이 지도, 보물 묻은 데를 네가 까먹어서 결국 못 찾았잖아."

".....그랬지."

"진짜 못 그렸다, 이 지도."

"그림은 원래 네 담당이잖아."

은호는 한참 공책을 내려다봤다. 그러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작전 회의 하자."

그날 오후, 둘은 마을버스를 타고 개울마을로 갔다. 할아버지 댁 마루에 나란히 앉자, 할아버지가 장롱 깊숙한 데서 뭔가를 꺼내 오셨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다.

펼치는 순간 둘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연필로 그린 옛날 지도였다. 구불구불한 산길, 개울, 그리고 군데군데 그림 표식이 있었다.

「세 갈래 소나무에서 왼쪽. 징검다리 일곱 개. 도깨비 바위를 지나면 물레방아 터.」

"오십 년 전에 내가 그렸다. 그때도 둘이었지. 나랑, 내 단짝이랑."

할아버지는 지도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 보셨다. 낡은 글씨로 이름 두 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산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은 길을 읽고, 한 사람은 주위를 살펴야 해. 그래서 둘이 봐야 하는 지도야."

할아버지는 태오와 은호를 번갈아 보셨다.

"모레 밤에 내가 뒤따라가마. 대신 길잡이는 너희 둘이 해라. 준비물도 알아서 챙기고. 뭐가 필요한지 정하는 것부터가 원정이다."

원정! 그 말에 태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서 모레가 왔으면 하는 두근거림이었다.

원정 준비

다음 날, 둘은 은호네 방에 작전 본부를 차렸다. 태오가 공책 새 페이지에 큼직하게 적었다.

「반딧불이 원정대 작전 계획」

"먼저 낮에 미리 가 보자. 오십 년 전 지도니까 지금이랑 다른 데가 있을 거야."

"오, 답사네. 좋아."

둘은 그날 낮에 산 입구까지 가 봤다. 세 갈래 소나무는 정말로 있었다. 어른 셋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은 나무였다. 은호가 소나무를 속속 그리는 동안, 태오는 걸음 수를 세고 갈림길을 공책에 적었다. 한 사람은 길을 읽고, 한 사람은 주위를 살피고. 할아버지 말씀 그대로였다.

내려오는 길에 은호가 소리쳤다.

"산딸기다!"

덤불에 빨간 알이 조롱조롱 달려 있었다. 하나씩 따서 입에 넣는데, 태오 눈이 동그아졌다.

"이거 왜 이렇게 달아?"

"산딸기 처음 먹어 봐?"

"응. 처음이야."

"헐."

은호가 배를 잡고 웃었다. 태오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한 알 더 따 먹었다. 손끝이 빨갱게 물들었다. 두 알, 세 알. 자꾸만 손이 갔다.

저녁에는 준비물 목록을 만들었다. 손전등 두 개, 물통, 모기약, 호루라기, 비상 초코바, 은호의 스케치북. 태오는 맨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폰은 가방 맨 밑에. 비상시에만 꺼낸다.」

"웬일이야?"

은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반딧불이는 밝은 데서는 못 산대. 불빛이 있으면 서로 못 찾는데."

태오가 도서관에서 빌린 곤충 책에서 읽은 내용이었다. 어젯밤에 읽다 보니 밤 열두 시가 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졸리지 않았다.

"너 곤충 책도 읽어?"

"원정대 대장이 반딧불이를 알아야 할 거 아냐."

"누구 마음대로 대장이야. 부대장 하시죠?"

"그럼 너는?"

"나야 대장이지."

둘은 베개를 던지며 한바탕 뒹굴었다. 결국 대장은 가위바위보로 정했다. 태오가 이겼다. 은호는 그림 대장을 하기로 했다.

밤의 산길

원정 날 저녁 다섯 시 반, 놀이터에 세 사람이 모였다. 배낭을 멘 태오와 은호,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길잡이, 앞장서라."

태오가 지도를 들고 앞장섰다. 은호가 옆에서 주위를 살폈다. 할아버지는 열 걸음쯤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셨다.

세 갈래 소나무까지는 쉬웠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숲이 깊어지자 길이 흐릿해졌다. 태오는 걸음 수를 세면서 표식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 이백 걸음에 넓적한 바위. 있다! 삼백 걸음에 바위틈 샘물. 있다! 오십 년 전 지도가 맞아떨어질 때마다 둘은 소리 죽여 환호했다.

"징검다리다!"

개울에 닿았을 때는 하늘이 보랏빛으로 저물고 있었다. 돌 일곱 개가 물살 위에 드문드문 놓여 있었다.

첫 돌을 밟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물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세 번째 돌에서 몸이 휘청하는 순간, 은호가 뒤에서 배낭을 콧 잡아 줬다.

"천천히! 급할수록 천천히."

일곱 번째 돌을 건너 땅에 발이 닿았을 때, 태오는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번쩍 들었다.

"건넜다!"

겨우 개울 하나 건넌 건데, 날아갈 것처럼 뿌듯했다.

도깨비 바위는 소문대로 무시무시했다. 저녁 어둠 속에서 보면 꼭 뿔 달린 도깨비 얼굴 같았다.

"오십 년 전에 오줌 지렸다는 사람, 누구까."

은호가 속닥거렸다. 뒤에서 할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둘은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덜덜 떨었다.

바위를 돌아서자 숲이 갑자기 트였다. 물소리가 커졌다. 무너진 돌담, 이끼 낀 커다란 나무 바퀴. 물레방아 터였다.

"손전등 꺼라. 그리고 기다려."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깜깜해졌다. 아무것도 안 보였다. 풀벌레 소리와 물소리만 들렸다. 일 분이 한 시간처럼 길었다. 깜깜한 게 답답해서, 태오는 저도 모르게 가방 맨 밑의 폰을 떠올렸다.

그때 은호가 태오의 소매를 잡았다.

"쉿. 온다."

풀숲에서 초록 불빛 하나가 떠올랐다.

깜빡. 깜빡.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됐다. 개울 위로, 돌담 위로, 두 아이의 머리 위로 초록 별들이 천천히 날아다녔다. 손을 뻗으니 손가락 사이로 불빛이 스르르 지나갔다.

"우와....."

태오는 그 말밖에 안 나왔다. 심장이 쿵쿵 뛰는데, 무섭지도 조마조마하지도 않았다. 그냥 좋아서 뛰는 거였다. 이런 두근거림은 처음이었다.

폰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옆을 보니 은호가 스케치북도 못 펴고 입을 벌린 채 반딧불이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태오야."

"응?"

"와 줘서 고마워."

".....데려와 줘서 고마워."

어둠 속에서 둘은 슬며시 주먹을 맞댔다. 톡. 반딧불이 한 마리가 놀란 듯 두 아이 사이로 날아올랐다.

돌아오는 길엔 할아버지가 앞장서셨다. 태오의 다리는 젖가락처럼 후들거렸다. 팔뚝은 모기한테 세 방이나 물렸고, 운동화는 개울물에 젖어 질퍽거렸다. 그런데 자꾸만 웃음이 났다.

"다리 아프지?"

"어. 근데 내일 또 가자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산을 다 내려와서 태오는 뒤를 돌아봤다. 까만 산이 말없이 서 있었다. 저 안에 초록 별들이 산다는 걸 이제 태오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원정은 계속된다

방학이 끝나 갈 무렵, 태오와 은호는 할아버지 댁 마루에 앉드려 있었다. 마루 가득 커다란 종이가 펼쳐져 있었다.

둘은 새 지도를 만드는 중이었다. 할아버지의 오십 년 전 지도 옆에, 태오가 잔 걸음수와 새 갈림길을 적고, 은호가 세 갈래 소나무, 징검다리, 도깨비 바위, 반딧불이를 차례로 그렸다. 제목은 태오가 붙였다.

반딧불이 원정 지도 — 둘이 봐야 하는 지도

귀퉁이에는 이름 두 개를 나란히 적었다. 오십 년 전 지도처럼.

할아버지는 두 지도를 나란히 놓고 오래오래 들여다보셨다.

"내년 여름에 또 오너라. 반딧불이는 기다린 사람한테만 보이니까."

개학하고 얼마 뒤, 은호가 방학 숙제로 낸 그림이 복도 게시판 한가운데에 붙었다. 까만 밤, 초록 별들 아래에 서 있는 두 아이의 뒷모습. 한 아이는 지도를 들고, 한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제목은 「우리 둘이 본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림 앞에 잔뜩 모여들었다.

"이거 진짜야? 반딧불이 진짜 봤어?"

"어디서? 어떻게?"

은호는 그때마다 태오를 가리켰다.

"길잡이한테 물어봐."

태오는 모험 공책을 펼치고 원정 이야기를 들려줬다. 세 갈래 소나무, 후들거리던 징검다리, 도깨비 바위,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던 초록 별들. 아이들 눈이 점점 커졌다.

"내년엔 나도 데려가!"

"나도! 나도!"

태오는 공책에 이름을 하나씩 받아 적었다. 내년 원정대는 꽤 커질 모양이었다.

게임은 그 뒤로도 가끔 했다. 토요일 오후에 은호랑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 시간. 그거면 충분했다. 새벽까지 폰을 붙잡고 있던 날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일 같았다. 대신 일요일 아침이면 태오는 공책을 들고 놀이터로 나갔다. 미끄럼틀 밑에서 은호가 색연필을 깎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요즘 동네 지도를 그리는 중이었다. 은행나무가 제일 노래지는 골목, 고양이 세 마리가 낮잠 자는 담벼락, 붕어빵 트럭이 서는 자리. 그려야 할 곳이 아직 잔뜩 남아 있었다.

"태오야, 가을엔 어디 갈까?"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안골 단풍이 그렇게 좋대."

"단풍 원정?"

"단풍 원정."

둘은 미끄럼틀 밑에서 주먹을 맞댔다. 툭.

끝.

□ 2026 책스책

※ 이 책은 책스책이 만든 창작 동화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 사건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책스책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수정하는 것을 금합니다.

부록 -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1. 태오는 왜 은호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나요? 약속을 어긴 뒤 태오의 마음은 어땠나요?
2. 반딧불이를 보았을 때 태오의 두근거림은 뽐기를 돌릴 때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3. 할아버지는 왜 "둘이 봐야 하는 지도"라고 했을까요? 원정에서 태오와 은호는 각자 어떤 역할을 했나요?
4. 원정을 다녀온 뒤 태오의 방학과 주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5. 우리 동네에서 친구와 함께 탐험하고 싶은 곳을 찾아, 나만의 원정 지도를 그림과 글로 만들어 보세요.

— 끝 —

03

사각사각 얼음 요정과 무지개 빙수

책스책 지음

세상에서 제일 더운 여름

매미가 아침부터 목이 터져라 울어 댔다.

"오늘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뉴스 소리에 지호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방학을 일주일 앞둔 7월, 세상은 온통 찜통이었다. 선풍기 바람마저 미지근했다. 학교 가는 길, 운동장 흙바닥은 프라이팬처럼 이글이글 달아올라 있었고, 그날만 골라 걷는 아이들의 걸음은 하나같이 느릿느릿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칠판에 커다랗게 글씨를 쓰고 계셨다.

우리 반 여름 축제 부스는 빙수 가게!

"와아!"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지호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다. 빙수라니! 이 더위에 빙수 가게라니!

"자, 그럼 모듬을 정해 줄게요. 지호는 민준이, 서연이, 그리고 보라랑 같은 모듬."

지호의 손뼉이 뚝 멈췄다.

보라. 지난달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친한 단짝이었다. 작년 여름에는 둘이서 용돈을 모아 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빙수 한 그릇을 시켜 놓고, 숟가락 두 개로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다. 마지막 팔 한 알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웃음이 터져서, 결국 반으로 잘라 나눠 먹었던 것도 지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고개를 핵 돌리는 사이였다. 지난달 체육 시간, 지호가 던진 피구공이 하필 보라의 어깨에 세게 맞았다. 지호가 미안하다고 말할 틈도 없이, 옆에 있던 아이들이 "지호 공 진짜 세다!" 하며 웃었고, 얼떨결에 지호도 따라 웃고 말았다. 보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너 진짜 미워!" 하고 체육관을 나가 버렸다. 그 뒤로 둘은 한 달째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보라도 지호 쪽을 힐끗 보더니 입을 꼭 다물었다.

'하필이면 보라랑 같은 모듬이라니!'

'하필이면 지호랑 같은 모듬이라니!'

둘은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서로 다른 곳만 쳐다보았다.

쉬는 시간, 같은 모듬이 된 민준이가 지호의 어깨를 툭 쳤다.

"야, 너희 둘 아직도 말 안 해? 축제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어찌려고."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떨렸다.

구름 얼음 상회

학교가 끝나고, 지호와 보라는 어쩔 수 없이 나란히 학교 앞 마트로 향했다. 빙수 재료를 사 오라는 선생님 심부름 때문이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학원 때문에 먼저 가 버려서, 하필 둘만 남았다.

두어 걸음쯤 거리를 두고 걷는 두 아이 사이로 뜨거운 바람만 오갔다. 먼저 입을 연 건 지호였다.

"시럽 사면 되지, 뭐. 딸기 시럽, 초코 시럽, 연유도 잔뜩 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보라가 툭 쏘았다.

"누가 몰라? 나도 그 생각 했거든."

"말 시키지 마."

"네가 먼저 했거든?"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훑 불어왔다. 한여름 대낮인데, 꼭 냉장고 문을 연 것처럼 서늘한 바람이었다. 둘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바람이 불어온 쪽을 돌아보니, 어제까지 분명 비어 있던 가게 자리에 낡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구름 얼음 상회 - 마음이 맞는 손님만 오세요」

"이런 가게가 있었나?"

"어제까지 없었는데."

둘은 홀린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맑게 울렸다.

가게 안은 바깥과는 딴 세상이었다. 천장에는 몽글몽글한 구름이 진짜로 둥둥 떠다니면서 이따금 작은 눈송이를 흩뿌렸다. 선반마다 반짝이는 얼음덩이가 눈처럼 하얗게 쌓여 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녹지 않았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한복 입은 아이들이 커다란 대접에 담긴 빙수를 둘러싸고 웃는 사진, 눈 쌓인 지붕 아래에서 김이 나는 팔죽을 나눠 먹는 사진.

그런데 계산대 위에서 주먹만 한 무언가가 폴짝 뛰어올랐다.

"어서 와! 나는 얼음 요정 사각이야."

지호와 보라는 입을 떡 벌렸다. 사각이는 온몸이 투명한 얼음으로 된 꼬마 요정이었다. 머리에는 눈송이 모양 왕관을 썼고, 움직일 때마다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가 났다. 빛이 몸을 지날 때마다 몸속에서 작은 무지개가 어른거렸다.

"너, 너 진짜 요정이야?"

보라가 더듬거리며 묻자 사각이가 가슴을 쪽 찼다.

"백 년 동안 이 나라 골목골목을 돌면서 빙수 가게를 도와준 요정이지. 그런데 요즘은 통 재미가 없어. 어딜 가나 얼음 위에 설탕물만 잔뜩 부어 대니 말이야."

사각이는 둘을 번갈아 보더니 빙긋 웃었다.

"너희, 빙수 가게를 열 거지? 마침 잘 왔어. 우리 가게 보물을 빌려줄게."

"저기, 간판에는 마음이 맞는 손님만 오라고 쓰여 있던데요."

보라가 우물쭈물 말하자 사각이가 눈을 찡긋했다.

"이 가게 문은 마음이 다시 맞고 싶은 손님한테도 열리거든."

지호와 보라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괜히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사각이가 손가락을 튕기자, 천장의 구름 사이에서 은빛 빙수 기계가 스르르 내려왔다. 기계 옆면에는 구불구불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설설이, 어떤 얼음이든 눈꽃처럼 갈아 주는 백 년 묵은 기계」

"이 기계로 얼음을 갈면 눈꽃처럼 보드라운 빙수가 돼. 하지만 조심해. 설설이한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

사각이가 손가락 두 개를 폈다.

"첫째, 몸에 좋은 진짜 재료만 넣을 것. 설설이는 백 년 동안 하늘 위 맑은 구름만 먹고 자라서, 몸에 안 좋은 걸 넣으면 금방 배탈이 나거든. 둘째, 빙수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을 것. 마음이 어긋나면 얼음도 어긋나게 갈리는 법이야."

지호와 보라는 서로를 슬쩍 쳐다보았다가 얼른 눈을 피했다.

"약속, 지킬 수 있지?"

"네!"

대답만큼은 둘 다 씩씩했다. 속으로는 '첫째 약속쯤이야 쉽지!' 하고만 생각하면서. 둘째 약속은, 둘 다 모르는 척했다.

가게를 나온 둘은 마트에 들러 알록달록한 시럽이며 젤리며 초코볼을 바구니 가득 담았다. 색깔이 고운 것, 달아 보이는 것만 고르느라 첫째 약속은 벌써 까맣게 잊은 채였다.

회색 빙수

축제를 이틀 앞둔 날, 지호네 모듬은 교실에 모여 빙수 만들기 연습을 했다. 책상 위에는 지호와 보라가 사 온 재료가 잔뜩 놓여 있었다. 새빨간 딸기 시럽, 색소로 물들인 파란 소다 시럽, 설탕 범벅 젤리, 초코볼, 그리고 연유 세 통.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다 부으면 무지개색 되겠는데?"

서연이가 파란 시럽을 흔들며 말했다. 민준이는 벌써 초코볼 봉지를 뜯어 입에 털어 넣고 있었다.

"자, 간다!"

지호가 설설이에 얼음을 넣고 손잡이를 돌렸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눈꽃처럼 고운 얼음이 그릇에 소복소복 쌓였다.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다. 손잡이를 돌리는 지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런데 지호가 딸기 시럽을 콧물 붓는 순간이었다.

푸시시식!

설설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눈처럼 하얗던 얼음이 순식간에 흐물흐물 녹아내렸다. 기계에서 나오는 얼음도 잿빛으로 변했다.

"뭐야, 왜 이래! 네가 시럽을 너무 많이 부었잖아!"

보라가 소리쳤다.

"네가 고른 시럽이잖아!"

"같이 골랐잖아!"

"너는 맨날 남 탓이야!"

"너야말로!"

둘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설설이는 더 심하게 덜덜 떨었다. 회색 얼음이 진창처럼 질퍽하게 쏟아졌다. 민준이가 "야, 야, 그만해!" 하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기계가 픽 하고 멈춰 버렸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릇에는 아무도 먹고 싶지 않은 잿빛 얼음 진창만 남아 있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계가 고장 난 거면, 축제는 어떡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설설이를 안고 구름 얼음 상회로 달려갔다.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가게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보라였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한 것이다. 눈이 마주치자 서로 머쓱해져서, 말없이 나란히 가게 문을 밀었다.

사각이는 설설이의 배를 살살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약속을 둘 다 어겼구나."

"둘 다요?"

"먼저 첫째 약속. 설탕 시럽이랑 색소가 잔뜩 들어갔으니 설설이가 배탈이 났지. 애들아, 단맛이 나쁜 게 아니야. 잘 익은 과일도 달고, 폭 삶은 팔도 달아. 하지만 설탕 범벅에 색소까지 들어간 가짜 단맛은 허만 잠깐 속일 뿐이야. 사람 몸도 똑같아. 그런 것만 먹으면 배는 부르는데 힘은 안 나고, 금방 또 배가 고파지지. 그러면 몸이 자꾸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돼."

지호는 뜨끔했다. 지난주에 사탕이랑 과자로 저녁을 때우고는, 밤에 배가 아파서 데굴데굴 굴렀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약속."

사각이가 둘을 번갈아 보았다.

"너희, 서로 마음이 어긋난 채로 얼음을 갈았지? 설설이는 만드는 사람 마음을 그대로 얼음에 담아. 뽀족한 마음은 뽀족한 얼음이 되고, 잿빛 마음은 잿빛 얼음이 되는 거야. 백 년 전부터 그랬어. 제일 맛있는 빙수는 언제나, 사이좋은 사람들 손에서 나왔지."

지호와 보라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잿빛 얼음이 자기들 마음 색깔이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설설이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보라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재료의 단맛, 그리고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의 손길. 그 두 가지면 돼.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네. 축제가 모레지?"

"어, 어떻게 알았어요?"

"요정이니까."

사각이가 창밖의 노을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내일 하루, 아주 바쁘겠는걸."

진짜 단맛을 찾아서

다음 날 아침, 지호와 보라는 시장에 갔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교실 꾸미기를 맡았으니, 재료는 둘의 몫이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온갖 냄새가 밀려왔다. 고소한 기름 냄새, 매콤한 떡볶이 냄새. 그리고 과일 가게 앞에 섰을 때, 잘 익은 수박 냄새가 훅 끼쳐 왔다.

"너 수박 좋아하지?"

지호가 먼저 조그맣게 물었다. 보라가 놀란 눈으로 지호를 보았다. 자기가 수박을 좋아하는 걸 지호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니.

"응. 너는 복숭아 좋아하고."

"너도 기억하네."

둘은 피식 웃음이 났다. 한 달 만에 서로를 보고 웃은 것이었다. 한번 웃고 나니까 이상하게 말문이 트였다.

"수박은 어떻게 골라야 하지?"

"통통 두드려서 맑은 소리가 나면 잘 익은 거래.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둘은 수박을 하나씩 두드려 보았다. 통통, 통통. 북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과일 가게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제일 잘 익은 놈으로 골라 주셨다. 노랗게 익은 참외도 향을 맡아 가며 고르고, 알알이 반짝이는 블루베리도 한 바구니 샀다. 무지개 색깔을 맞추려고 파인애플과 키위도 하나씩 골랐다. 할아버지가 맛보라며 건네주신 블루베리를 한 알씩 나눠 먹는데, 보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과일은 설탕을 안 넣어도 달다. 진짜 신기해."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햇별이 만든 단맛이라고. 여름 내내 햇별을 받아서 과일 속에 단맛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래."

팔집 앞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팔을 샀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팔은 설탕을 조금만 넣고 오래오래 끓인 거란다. 팔은 원래 저 혼자서도 달거든. 급하게 설탕으로 맛을 내면 혀만 달고, 정성으로 끓이면 속까지 달지."

혀만 달고, 속까지 달고. 지호는 그 말을 입속으로 몇 번이나 굴려 보았다. 사각이가 한 말이랑 똑같았다.

사각사각 부엌의 밤

시장에서 돌아온 둘은 지호네 부엌에 재료를 펼쳐 놓았다. 얼린 우유를 갈면 시럽 없이도 고소하고 부드러운 눈꽃이 된다고 사각이가 알려 준 비법대로, 우유를 통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나란히 넣었다.

"이제 과일 썰자."

지호가 도마를 꺼냈다. 지호가 수박을 깎둑깎둑 썰는 소리와 보라가 블루베리를 씻는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저녁 짓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있었다.

수박을 썰다가, 지호가 문득 칼질을 멈췄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 못 할 것 같았다.

"보라야."

"응?"

"그때 피구공,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바로 미안하다고 하려 했는데 애들이 웃으니까 나도 얼떨결에 따라 웃어 버렸어. 그게 제일 미안해."

보라도 블루베리를 씻던 손을 멈췄다. 수돗물 소리만 쏘아, 흐르다가 뚝 그쳤다.

"사실 나도 알아. 공에 맞은 건 아픈 것도 잠깐이었어. 근데 네가 웃는 걸 보니까, 내가 아픈 건 아무래도 상관없나 싶어서 그게 서운했던 거야. 밉다고 한 말, 진심 아니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말하고 나니, 한 달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얼음덩이가 사르르 녹는 것 같았다. 둘은 잠깐 마주 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이 말 한마디를 못 해서 한 달을 그렇게 보냈다니.

"작년에 분식집에서 팔빙수 먹었던 거 기억나?"

"마지막 팔 한 알 가지고 가위바위보 했잖아."

"결국 반으로 잘라 먹고."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그때 부엌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식탁 위에 놓아둔 설설이가 반짝, 은빛으로 빛났다. 배탈이 다 나은 것이다. 둘은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었다. 둘째 약속이 지켜졌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잠들기 전에 냉동실을 한 번 더 열어 보았다. 우유가 뽀얗게 얼어가고 있었다. 내일이 기다려져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소풍 전날보다 더 두근거리는 밤이었다.

무지개 빙수

드디어 축제 날이 밝았다. 지호네 반 부스 앞에는 서연이가 밤새 그린 커다란 간판이 걸렸다.

「무지개 빙수 - 설탕 시럽 없이도 달콤해요!」

지호가 설설이의 손잡이를 돌리고, 보라가 그릇을 받쳤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얼린 우유가 눈꽃처럼 소복소복 갈려 나왔다. 그 위에 민준이와 서연이가 빨간 수박, 주황빛 참외, 노란 파인애플, 초록 키위, 보라색 블루베리를 색깔 맞춰 얹고, 마지막으로 폭신하게 삶은 팥을 한 숟갈 올렸다. 네 아이의 손이 착착 맞아 돌아갔다.

"우와, 진짜 무지개다!"

"시럽도 안 넣었다는데 왜 이렇게 달지?"

"햇별이 만든 단맛이래!"

빙수를 먹은 아이들 얼굴이 무지개처럼 환해졌다. 옆 반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소문을 듣고 온 교장 선생님까지 줄을 섰다.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자 큰일이 났다. 줄은 점점 길어지는데 떨어 둔 과일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떡해, 수박이 두 조각밖에 안 남았어!"

서연이가 발을 동동 굴렀다. 보라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내가 썰게. 지호 너는 계속 갈아. 민준이는 그릇, 서연이는 과일 얹기. 우리 넷이면 돼."

"좋아!"

네 아이는 역할을 나눠 부지런히 움직였다. 보라가 썰고, 지호가 갈고, 민준이가 나르고, 서연이가 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빠질수록 힘들기는커녕 점점 신이 났다. 손발이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호는 생각했다. 신기하게도 넷이 함께 만든 빙수는 아까보다도 얼음이 곱고 보드라웠다.

"둘이, 아니 넷이 손발이 척척 맞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호와 보라는 마주 보며 씩 웃었다. 이제는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았다.

축제가 끝날 무렵, 마지막 한 그릇은 넷이서 나눠 먹었다. 숟가락 네 개가 한 그릇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부딪혔다. 바닥에 팔 한 알만 남자, 보라가 그걸 반으로, 다시 반으로 잘랐다.

"넷이니까 사등분."

지호는 웃음이 터졌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팔 조각이, 세상에서 제일 달았다.

다시 불어오는 바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축제가 끝났다. 뒷정리를 마친 지호와 보라가 설설이를 챙기는데, 기계 옆에 조그만 얼음 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는 손에 닿자 시원하게 녹으면서 반짝이는 글씨만 남겼다.

「약속을 지켜 줘서 고마워.

진짜 단맛은 햇별과 정성이 만들고,

제일 맛있는 빙수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만들지.

설설이는 너희 둘에게 선물로 줄게.

얼음 요정 사각이가.」

둘은 골목 모퉁이로 달려가 보았다. 하지만 구름 얼음 상회가 있던 자리에는 낡은 벽만 남아 있었다. 간판도, 딸랑거리던 종도, 천장의 구름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한여름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둘의 이마를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사각이는 또 다른 골목으로 갔나 봐."

"마음이 어긋난 애들을 찾으러 갔을지도 몰라."

보라가 그렇게 말하고는 지호를 보며 웃었다. 지호도 따라 웃었다. 한 달 전에는 따라 웃다가 멀어졌는데, 이번에는 따라 웃으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내년 여름에도 또 만들자, 무지개 빙수."

"그래. 민준이랑 서연이도 같이. 우리 넷이서."

지호와 보라는 설설이를 사이좋게 나눠 들고 노을 진 골목길을 나란히 걸어갔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어디선가 눈 밟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끝.

□ 2026 책스책

※ 이 책은 책스책이 만든 창작 동화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 사건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책스책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수정하는 것을 금합니다.

부록 -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1. 설설이가 배탈이 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2. '허만 단 맛'과 '속까지 단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3. 지호와 보라가 다시 친해질 수 있었던 건 어떤 말과 행동 덕분이었나요?
4. 축제에서 과일이 떨어졌을 때, 네 아이는 어떻게 힘을 모았나요?
5. 내가 만들고 싶은 건강한 빙수를 재료와 함께 그림과 글로 소개해 보세요.

— 끝 —

판 권

책 이름	책스책 단편집
실린 책	1. 파도가 만든 보석 — 책스책 2. 반딧불이 원정대 — 책스책 3. 사각사각 얼음 요정과 무지개 빙수 — 책스책
학년	4학년 1반
펴낸 해	2026년
펴낸 곳	책스책 책방 (chekschek.com)
판형	A4 (210×297mm)

책스책 · 책방

책스책 단편집 · 책스책

4학년 1반 친구들의 이야기 3편

파도가 만든 보석 — 책스책

반딧불이 원정대 — 책스책

사각사각 얼음 요정과 무지개 빙수 — 책스책

책스책

4학년 1반 · 2026 · chekschek.com



chekschek.com